

초등 1·2학년 새학기 수업 큰일났다

올 교과서 전면 개편 불구 발행 늦고 담임은 내달 결정… 혼란 불보듯

올해부터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가 전면 개편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교과서가 발간되지 않은 데다, 수업을 맡을 담임교사는 2월 말까지 결정될 예정이어서 수업준비 미흡에 따른 교실 혼란이 우려된다.<관련기사 17면>

2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주·전남 교육청, 일선 학교에 따르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초등 1~2학년 교과서가 새롭게 바뀐다. 새 교과서는 기존 5개 과목에서 3개 과목으로 줄어든다. 국어와 수학은 기존 틀을 유지하지만, 바른생활·즐거운생활·슬기로운생활 등 3개 과목은 주제별로 뮤어 하나의

교과서로 통합된다. 교과서 구성 체계도 창의교육과 자기주도학습 중심으로 전환된다. 이처럼 교과서가 크게 바뀐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 교과서 발행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2월 초에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발행해, 중순까지 일선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후 1~2학년 담임교사는 교사용 지도서를 보다

로 운영계획서, 진도계획서, 평가계획서 등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

문제는 광주·전남 교원인사 시스템 상 1~2학년 담임교사는 신학기(3월 1일) 직전인 2월 말까지만 진행된다. 이에 따라 계획서 작성은 학기 중에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은 교과서가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계획서를 수정·보완하면 됐지만, 새 교과서는 전면 개편에 따라 시일이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1~2학년 교과서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담임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은 덜 하다”면서 “2월 말께 갑자

기 1~2학년 담임으로 결정되면 내용 파악, 계획서 작성 등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순천의 한 초등교사도 “연간 지도 계획 등을 개학 전에 짜야하는데, 교과서 배포나 인사가 늦어지게 되면 신학기 때 업무 과다로 학생교육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1~2학년 학급 담임 결정이 늦어지면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교실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교육청의 개정교과과정 대책을 촉구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영광 전기차업체 사칭 투자 사기 피해자 1000여명 소송

경찰은 적게는 수백만원을 투자한 피해자를 비롯, 평생 농사를 하며 모아온 몇 수천만원을 투자했다가 고스란히 날릴 처지에 놓이게 된 70대 노인 등 다양한 피해자들의 하소연이 이어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전기자동차 생산업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사태 주의를 지켜보며 대응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피해자들과 함께 상당수 피해자들은 사건 주의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내용참 (8737)
김종우



여수서 무속인 숨진채 발견 생활고 시달리다 아사 추정

여수시 국동 무속인 K(여·49)씨의 집에서 K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집주인이 발견, 21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 부패 상태 등으로 미뤄 K씨가 숨진 지 7~10일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외상이 없는데 매우 마른 상태이고 밥솥에 밥이 없는 등 식사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K씨가 아사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점검

설(2월 10일)을 앞두고 광주시 북구 농축산유통팀 직원들이 21일 두암동 의 한 대형마트에서 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지하층 소규모 건축물

긴급 소방특별조사

교회·성당서 자며 마트 턴 10대들

쌍나팔 ○-가출했다가 응돈이 떨어져 교회와 성당에서 잠

을 자며 영업이 끝난 마트를 떠어 배고픔을 해결한 10대 3명이 경찰서행.

○-광주시부경찰은 따르면 최모(15)군 등 3명은 지난해 10월 26일 새벽 1시7분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 구모(45)씨의 마트에 침입해 과자, 음료수 등 3만1300원 상당의 음식물을 훔쳤다는 것.

○-경찰은 “최군 일당이 집을 나와 교회를 전전하다가 배가 고파 빙 마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상품권 20% 싸게 팔아요”

인터넷 사기 10대 둘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21일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이나 중고물품을 싸게 판다고 속여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상습사기)로 김모(18)군 등 2명을 구속했다.

김군 등은 지난해 11월 17일 광주시

시 산간구의 한 PC방에서 유명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100만원 짜리 백화점 상품권을 80만원에 싸게 판다고 속인 후 입금받는 등 지난해 6

월부터 최근까지 상품권,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팔 것처럼 속이고 121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물품을 판다고 올려 피해자들을 현혹 했으며 제 3자의 명의로 된 통장을 통해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가출 후

모텔에서 생활하며 편취한 돈을 유통 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보건복지부 위탁교육기관 ▶

* 보육교사는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영유아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2013년도 제2기 보육교사교육원 학생모집



◎ 교육안내

- 교육기간 : 2013년 2월 18일(월) ~ 12월 중순(약 10개월)
-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수업
- 교육시간 : 주간반 오전 9:30~1:10 / 야간반 오후 6:30~10:10

◎ 제출서류

1. 본 교육원 입소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3. 주민등록본 1부
4.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 ※ 원서접수시 전형료 : 5,000원

◎ 전형방법

- 서류 및 면접전형 : 2013년 2월 7일(목) 오전 10시

◎ 원서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마감일 : 2013년 1월 14일(월) ~ 2월 6일(수)
- ※ 토요일, 공휴일은 휴무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2013년 2월 6일(수) 도착분에 한함)
- 원서접수처 : 본 대학교 교육원 교학처

◎ 문의할 곳

- 교학처 김승호 선생
• TEL 062-605-1112, 605-1023 FAX 062-572-0264
• E-mail : krimseon@hanmail.net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광신대학교 교학처

보건복지부에서 위탁 선정한 광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소정의 과정(보육교사양성교육과정 1년)을 수료하면 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지원하는 교육부 장학금(1년 1,700,000원)과 광신대학교 장학금(1년 1,100,000원)을 지원합니다.

보육교사 교육원은 광신대학교 교육원입니다.

보육교사 교